



공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Contents



08



24



32



36



44



48



50



2017 November

R.O.K AIR FORCE
VOLUME 473

공군 IN

- 06 Pioneer's Opinion 공군 전력을 좌우하는 항공우주산업(최성빈 KIDA 책임연구위원)
- 08 기획특집 ①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 ADEX 2017
- 20 포토 프레임@AF 10월의 참모총장 동정
- 22 Air Force Monthly 10월의 공군 소식
- 24 기획특집 ② 군견과 함께하는 따뜻한 늦가을
- 28 기획특집 ③ '공군군악대+염광고등학교' 연습현장 속으로
- 30 기획특집 ④ 제16회 병영문학상 '시' 부문 최우수작
- 32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11월 축제
- 34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먼지 한 톨 놓치지 않는다! '할주로 특공대'
- 36 조인, 조인! 온기제작소 조현식 대표
- 40 신고합니다! 11비 소방중대 병장 서상원 & 이병 김대영
- 42 Fitness 그대의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 43 하늘을 향한 시선 내면 속의 자아를 찾자



GLOBAL & INSIGHT

- 44 Air-power Report 중국의 첫 자국산 제트 훈련기 : 셴양 JJ-1
-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주택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표지(앞)
서울 ADEX 2017 행사장
사진 원사 서복남(15비 정훈실)

커버스토리
글 중위 이준건(홍보과)

CULTURE 36,5

- 48 Hollywood English 윈드 리버
- 50 트렌드가 보인다 스마트폰 삼국지! 그들의 비밀병기는?

발행일자 2017년 11월 1일(통권 제473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광근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대령(진)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7100430)

(910-4504, 042-553-4504)

OPINION

- 52 생각하는 그림 생선 한 마리로 감동을 준 정조의 리더십
- 54 담벼락 하늘
- 56 책 읽는 공군 자존감 수업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ioneer's Opinion

공군 전력을 좌우하는 항공우주산업

글쓴이는 KAIST에서 산업공학박사를 받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KIDA에서 무기체계연구센터장, 정보화연구센터장, 국방획득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정책위원장)과 공군 정책발전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군 전력을 좌우하는 항공우주산업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실현 가능한 전환계획이 있어야 하고, 특히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미군을 대체할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뿐만 아니라 미래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 및 군사능력 구비에 있어서, 실시간 정찰(위성·무인기·레이더 등)과 정밀 타격(전투기·전투함·미사일 등) 기능을 보유한 '항공우주분야 무기체계'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군의 항공 전력의 기반이 되는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2017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10월 17일부터 6일간 공군 서울기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ADEX 2017에는 33개국 405개(국내 188개, 해외 217개) 업체가 참여하여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소개와 수출 및 마케팅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는 2015년보다 규모와 성과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500MD 및 F-5E/F 조립생산, F-16 및 UH-50 면허생산 이후 1990년대부터 기본훈련기(KT-1), 초음속 훈련기(T-50), 수리온기동헬기 등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하여 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터키 등 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항공우주산업 수준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독자개발이 가능한 단계이며, 선진 항공우주국가로 도약하는 전환기적 시점에 있다.

지난 40년간 발전시킨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적 안보자산이고 우리 군 항공 전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군은 항공 우주산업과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의 관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항공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형전투기(KF-X), 한국형 우주발사체 및 달탐사, 인공위성, 드론, 무인기 등 항공우주분야에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공군 전력의 기반이 되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협력해야 하며, 항공기 등 각종 무기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항공우주분야 부품·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금번 서울 ADEX 2017에서 선보인 세계적 수준의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은 공군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결정체이다. 항공우주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으로 지속·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공군이 되기 위해, 공군은 항공 전력의 기반이 되는 항공우주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 ADEX 2017

글
이휘리(공감기자)



편집
중위 이준건(홍보과)



검토
대위 김홍찬
(에어쇼 기획실)
ADEX 홍보팀

어서와~ ADEX는 처음이지? 서울 ADEX의 거의 모든 것

가을의 하늘은 유난히 청명하고 아름답다. 파란 하늘도 그렇지만, 성남 비행장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관중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의 발자취를 돌아보자.



▲ 제1회 서울국제에어쇼(1996)

▲ 서울에어쇼 마스코트 원형과 왕키

‘처음’이지만 ‘최고’를 위하여

이렇다 할 항공우주산업 전시회나 에어쇼가 없던 시절,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이하 서울 ADEX)는

1996년 10월 제1회 서울국제에어쇼라는 명칭으로

공군 서울기지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처음’이라는 기대와 부담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최고’의 에어쇼를 기획했고, 국무총리 보고 끝에 마침내 국제행사로 승인되었다.

제1회 서울국제에어쇼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수많은 구름 관중이 몰리면서 행사는 성황리에 마쳤다.

제1회 서울에어쇼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 2년 뒤인 1998년에 2회 에어쇼가 개최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에 3회 에어쇼가 개최되었다. 3회 이후에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장소 또한 4회(2003)는 부산 BEXCO에서, 9회(2013)에는 일산 KINTEX와 공군 청주기지 두 곳에서 개최되었으나,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군 서울기지에서 개최되었다.

알수록 재미있는 서울 ADEX의 역사

한편, 서울 ADEX에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재미있는 사연들이 있다.

서울 ADEX 2001에서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기종 선정(F-X)을 앞두고

미국·프랑스·러시아 항공사들의 판매 경합을 벌였다.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5E, 러시아의 Su-31/35 등이 선보인 이색적이고 화려한

기동은 그 당시 ‘장안의 화제거리’였다.

서울 ADEX 2005에서는 현재 조종사들의 고등비행교육에 활용되고

블랙이글스 역시 사용하는 기종인 ‘F-50 골든이글’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음속 항공기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 서울 ADEX 2001에 찾아온 전투기 라팔(Rafale)

이어 2007년에는 블랙이글스가 주기종을 A-37에서 T-50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고별비행을 갖는 특별한 무대가 있었으며, 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직접 공군의 국산항공기에 탑승하는 '국민조종사 임명식' 또한 이때부터 시작했다. 서울 ADEX 2015에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가 처음으로 등장해,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이끌어냈다.

그냥 에어쇼? No! '국제적 방위산업전시회 & 군사외교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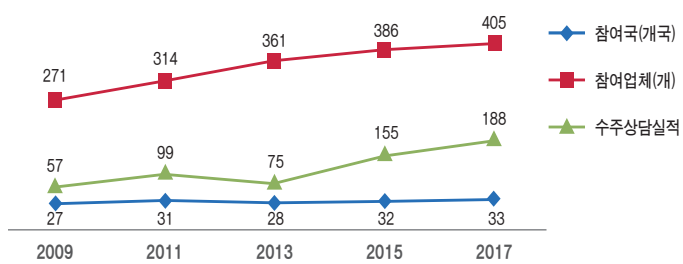
이렇듯 첫 시작 이후 21년이 지난 지금, 에어쇼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1999년에는 서울국제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에는 현재의 이름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로 명칭이 바뀌고 본격적인 항공·방위산업 비즈니스 행사로 진화했다. 현재는 국무총리를 명예대회장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장관을 명예부대회장으로 하는 범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 서울 ADEX 2009 당시 임명식을 가진 국민조종사 2기

구 분		'07	'09	'11	'13	'15	'17
참가국		26개국	27개국	31개국	28개국	32개국	33개국
참가 업체	국내	86개 업체	87개 업체	118개 업체	170개 업체	208개 업체	188개 업체
	국외	170개 업체	186개 업체	196개 업체	191개 업체	178개 업체	217개 업체
부스	국내	540부스	629부스	812부스	998부스	1,133부스	1,252부스
	국외	315부스	275부스	373부스	431부스	386부스	448부스
관람객		25.4만 명	26.9만 명	25.5만 명	26.5만 명	25만 명	28.2만 명



ADEX 참여 업체 및 거래실적

전시는 화려해지고 비즈니스 미팅의 규모도 금액도 커졌다. 10회(2015) 행사에서는 수주 및 상담 건이 31건 155억 7만 불 상당¹⁾에 달했다. 서울 ADEX는 이를 통해 단순한 에어쇼를 넘어 국내외 항공우주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의 수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있다.

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실적 발표자료



▲ 서울 ADEX 2013에 찾아온 국내외 군사전문가

더불어 서울 ADEX가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군사외교의 장'이 된다는 사실도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서울 ADEX에서는 항공우주와 관련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공군참모총장 회의를 위해 세계 각국의 공군참모총장 및 주요인사가 한국을 찾아 다양한 국가와 공군 간의 군사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갖는다. 이번 서울 ADEX 2017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콰도르 등의 장성급 주요인사가 국산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여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 ADEX 2017

이처럼 서울 ADEX는 국제적 방위산업전시회이자 군사외교의 장이다. 여기에 더해 이 행사는 온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ADEX 2017은 크게 ① 실내·외 전시 ② 시범 및 특수비행 ③ 세미나·회의·체험행사로 나뉜다. 즉, 비즈니스 거래는 물론 에어쇼와 항공기 관람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주요 거래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데이'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퍼블릭 데이'를 비롯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학생의 날(student day)까지 알차게 구성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최고 자랑 블랙이글스를 비롯해 FA-50, KT-1의 멋진 단기기동을 볼 수 있었으며, 2,000억을 호가하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Raptor(랩터)와 내년부터 공군에 도입되어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F-35A의 모습도 공개되어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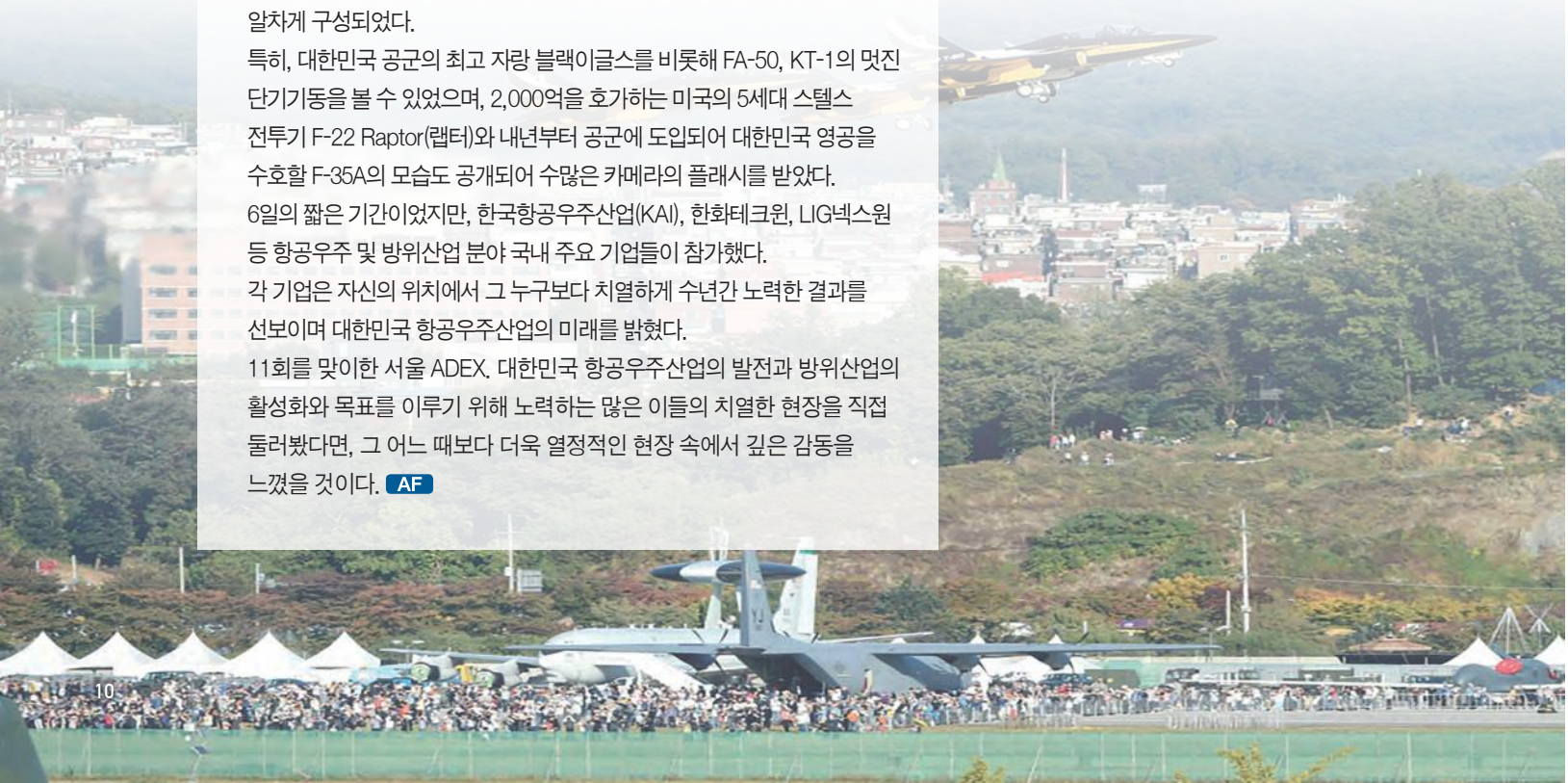
6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등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다.


각 기업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밝혔다.

11회를 맞이한 서울 ADEX.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치열한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정적인 현장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AF**




▲ 서울 ADEX 2017에 찾아온 F-22



글 박민혜(공감기자) 

취재지원
중위 이준건(홍보과)

자료제공
ADEX 홍보팀

공군 IN 
기획특집 1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 ADEX 2017



ADEX가 말하는 ADEX

ADEX를 총괄하는 전시사업팀에 따르면, 이번 서울 ADEX 2017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비즈니스 데이(Business Day) 기간에는 시범비행을 최소화하고, 57개국 79명 바이어와의 미팅을 강화하여 1,370여 건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계층의 활발한 참여와 일반인들의 폭넓은 체험을 위한 행사 마련에도 힘썼다. 10월 20일은 학생의 날(Student Day)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항공기 조종 및 정비에 관한 직업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 6년간 국내 항공 산업은 188% 이상 고속성장하며 '16년도 국내 생산규모가 52억 7,500만 달러, 수출액 29억 1,300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 중 55%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관련 업계 관계자의 노력에 더해 ADEX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비즈니스 상담 주선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 국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행사장을 방문함으로써 항공 산업 육성 인식을 제고했고,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번 서울 ADEX 2017에는 33개국에서 405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이 중 217개 업체가 해외에서 참가한 것이다. 또 총 28만 2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18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ADEX 홍보팀 측에서는 “ADEX가 단순한 볼거리만을 제공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 비즈니스의 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에 국산 항공기를 수출하고, 더 나아가 항공 산업의 원조인 미국의 차세대고등훈련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활발히 뛰고 있다. 이번 전시 기간 중에도 T-50의 성능을 과시하여 수주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서 ADEX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AF**



공군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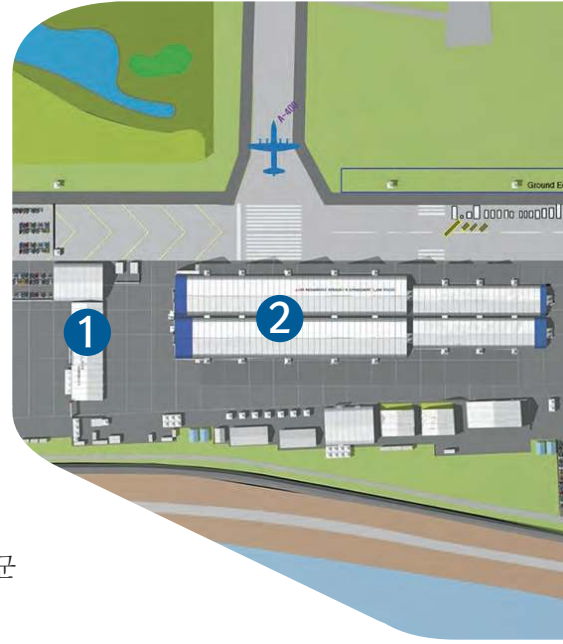
기획특집 1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 ADEX 2017

글·사진
중위 김형진
(홍보과)



편집
중위 이준건
(홍보과)



월간 「공군」 하나면 충분해!

서울 ADEX 2017 돌아보기

높고 푸르른 하늘 아래 단풍이 화사하게 산천초목을 물들이는 10월의 어느 날, 공군 서울기지에서 2년 만에 돌아온 서울 ADEX 2017이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ADEX 2017은 세계 최첨단 항공기와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유명하지요.

1996년 ‘서울 에어쇼 1996’부터 시작해 이번에 11회를 맞는 서울 ADEX 2017. 2015년에 개최된 행사에선 26만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에도 2015년도 못지 않게 관심과 열정으로 후끈거렸습니다. 선선한 바람 속 따뜻한 가을볕에 설레는 마음 안고 간 서울 ADEX 2017 현장취재기, 지금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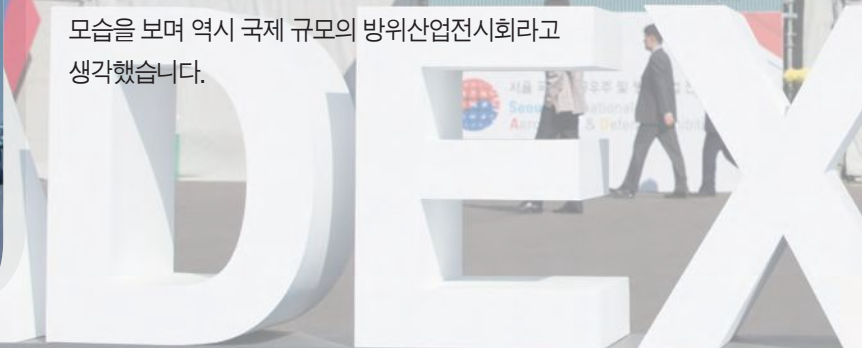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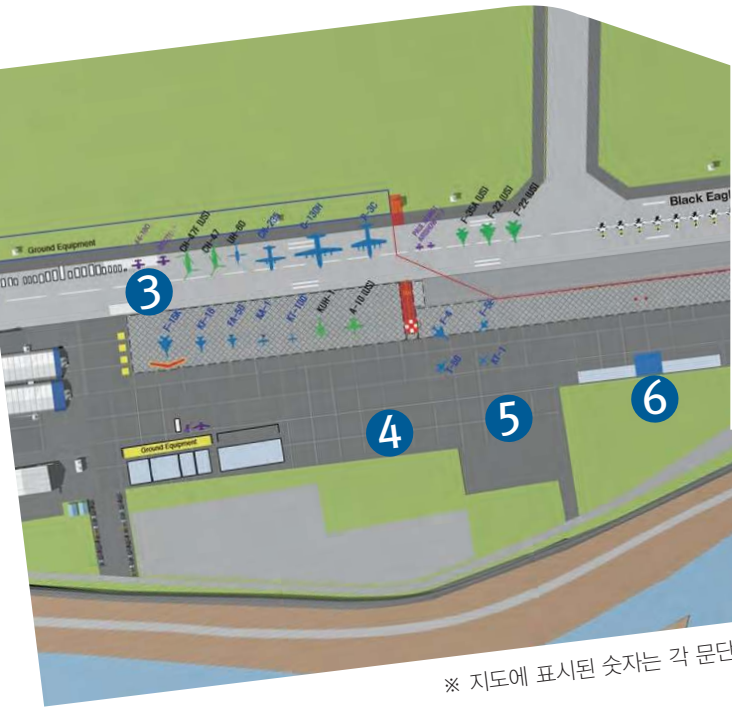
① 즐거운 축제에는 안전이 제일

조금은 쌀쌀했던 초가을 아침,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매표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디만, 입구 보안 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외에도 안전을 위한 합동 종합상황실과 비행통제소 운영, 군경 합동순찰 및 민·군 현장 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역시 국제 규모의 방위산업전시회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화여고 1학년 백다은(17세)
“서울 ADEX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흔치 않은 경험들을
하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었어요. 제 꿈이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공군이
되는 거예요!”



※ 지도에 표시된 숫자는 각 문단의 번호를 뜻합니다.

② 아텍스에 어서와! 볼거리 가득한 실내전시장

검색대를 지나자 활주로 위에 넓게 꾸며진 전시장이 보였습니다. 넓은 활주로를 보니 마음이 뽕 뚫리는 느낌이었는데, 행사장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 실내전시관에서는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를 비롯해 우주기기, 무기체계 관련 장비 및 모형, 항공 시뮬레이터 등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습니다. 항공방위산업 관련 사업관계자는 물론이고 방위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관람객들도 많이 찾아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③ 활주로를 무대삼은 각양각색의 전투기, 실외전시장

실내전시장을 둘러보고 실외로 나오니 눈앞에 각종 비행기들이 보입니다. 최신 전투기·수송기·헬기·민간 항공기와 군용차·탱크·자주포·장갑차 등 지상 장비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총 32종의 항공기와 39종에 달하는 무장과 장비도 함께 전시되어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서울 ADEX 2017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인 스텔스기 F-35A도 대중에게 처음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실내전시장을 지나 본격적인 활주로로 진입하자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비롯해 KF-16, F-4와 F-5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실외전시장에 주기된 전투기를 보며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주야로 달렸던 전투기의 위용과 정교함에 놀라움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또, 창공을 가르며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죠!





▲ 권도순(주부)

“하나되는 공군 장병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인상적이에요.
우리 아이도 크면 꼭 공군에 보내고 싶어요!”

④ 눈과 귀가 모두 즐겁다! 야외공연 및 행사

신기한 눈빛으로 전시장을 둘러보던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흥겨운 음악이 들립니다. 공군 군악대와 B-boy 팀의 흥겹고 박진감 넘치는 공연과 의장대의 ‘칼각’이 돋보이는 의장시범입니다. 함께 리듬을 타며 군악의장대의 공연을 구경하다보니, 어느새 어깨가 들썩들썩~ 신이 납니다.

한편,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항공우주체험관이었는데요, 축제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군 관련 이벤트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상 캐스터가 되어 날씨를 해설하는 기상캐스터 체험, 비행착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바라니 의자 체험, 블랙이글스 모형항공기 제작, VR 시뮬레이터 체험, 조종복 입기 등 공군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하며 공군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종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꼬마 관람객부터 VR시뮬레이터를 체험해 보는 중년의 어머니 관람객까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군과 항공우주를 연계한 항공우주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항공우주의 역사와 미래를 아울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⑤ 하늘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손 머리 위로! 학생의 날(Student day)

이번 서울 ADEX 2017에서는 특별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학생의 날(Student day)를 만들어 운영했는데요,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직접 항공우주 분야에 관해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세미나를 마련해 항공우주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항공대 김두만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항공관련 주요 인물들로부터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열려 주목을 끌었고요. 더불어 항공정비와 조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모형항공기 만들기 및 VR Cube 체험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의 항공 꿈나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복돋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좌에서부터 이의고 1학년 맹운하박서아-강경원(17세)

“원래 항공우주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또, 간접적으로나마 공군을 경험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⑥ 하늘은 내가 평정한다! 각종 항공 관련 경연대회

항공우주체험관을 돌아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큰 부스가 한쪽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바로 공군참모총장배 제12회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가 열리는 부스입니다.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항공기를 조종하며 갈고 닦은 비행 실력을 겨루는 대회. 참가자들은 F-15K 공대공 전투, KF-16 공대지 전투 및 KT-1 항공 레이싱으로 나뉘어 서로의 조종기량을 뽐냈습니다. F-15K는 문성훈(21세, 대학생), KF-16은 이진혁(42세, 연구원), KT-1은 신준영(21세, 대학생)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시관 옆에 위치한 드론경기장에서는 제2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종합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피해 요리조리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들을 보면서 앞으로 영공방위에서 활약할 미래의 공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대회 행사장을 끝으로 모든 체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벌써 태양이 붉은빛을 내며 누엣누엣 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다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2년 뒤에 있을 다음 ADEX를 기대해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과 우주로 꽉 차게 보낸 하루, 볼 거리도 즐길 거리도 생각할 거리도 많았던 서울 ADEX 2017.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2019년에도 다시 만나요! **AF**

▼ 영서초 3학년 이진주

“좀 어렵긴 한데 재미있었어요! ‘내가 너무 못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올 거예요! 다음에는 F-15K도 조종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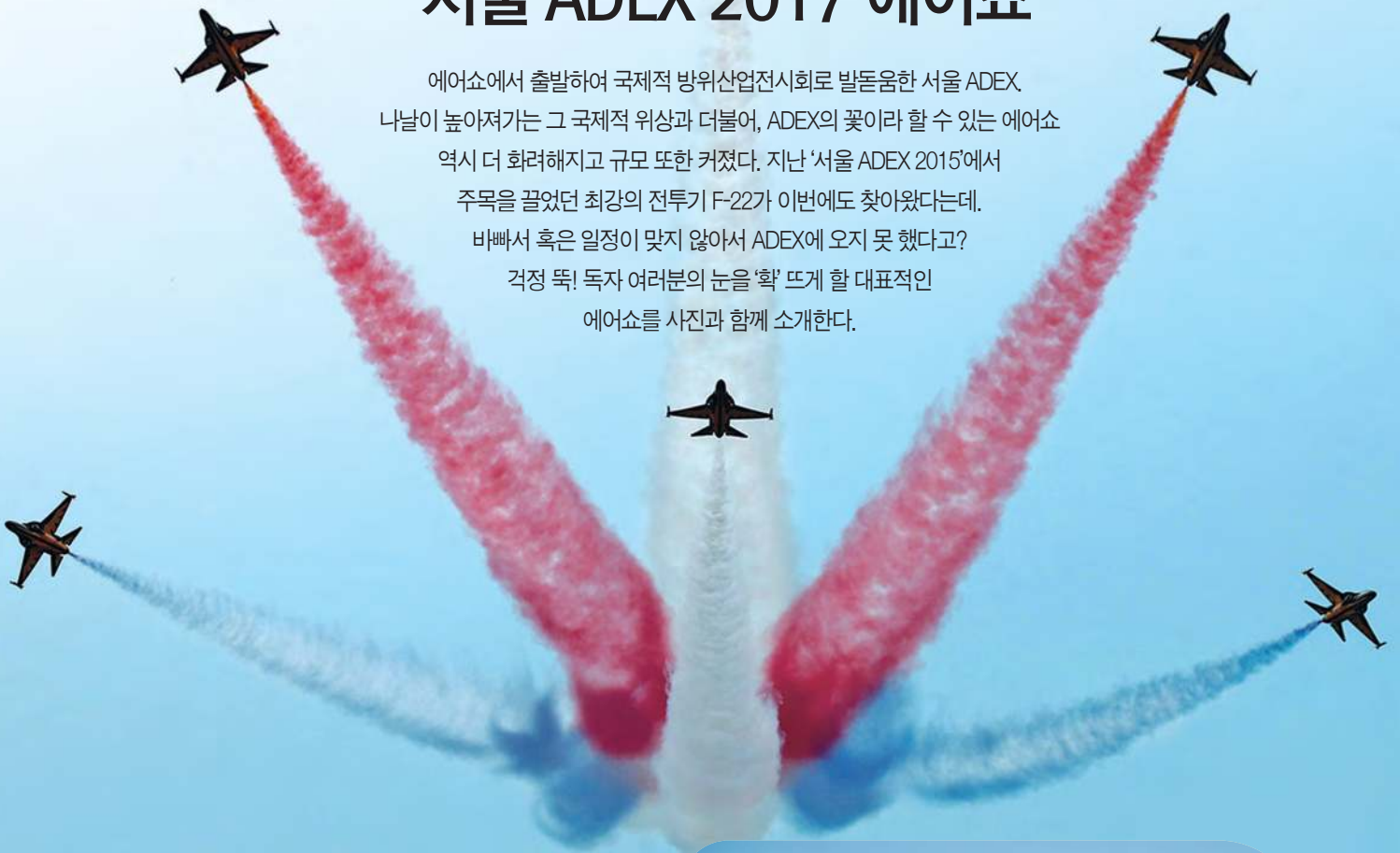




에어쇼를 못 봤다고? 여기야, 여기~

사진으로 보는 서울 ADEX 2017 에어쇼

에어쇼에서 출발하여 국제적 방위산업전시회로 발돋움한 서울 ADEX. 날이 높아져가는 그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ADEX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에어쇼 역시 더 화려해지고 규모 또한 커졌다. 지난 '서울 ADEX 2015'에서 주목을 끌었던 최강의 전투기 F-22가 이번에도 찾아왔다는데. 바빠서 혹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ADEX에 오지 못 했다고? 걱정 뚱! 독자 여러분의 눈을 '확' 뜨게 할 대표적인 에어쇼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특수비행

T-50이라는 단어에는 '응?' 할 수도 있지만 '블랙이글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국산 훈련기인 T-50은 대한민국 공군의 제53특수비행전대 일명 '블랙이글스'의 주기종(T-50B)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멋진 특수비행을 통해 ADEX를 보러 온 모든 관광객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비행체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멋진 항공기.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탑승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대한민국 공군에서 모집하는 '국민조종사가 되면 가능한 일이다. 서울 ADEX 2017에서 제6기 국민조종사들은 FA-50과 KT-1에 탑승해 한반도 영공을 직접 날았으며, 이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CN-235 수송기와 HH-47 헬기 탑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많은 국민이 비행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탐색구조 시범비행

임무 중인 아군 조종사가 적의 지대공 공격을 받아 비상탈출을 감행한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지상의 적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아군의 KA-1, A-10 항공기가 적의 지상병력에 불세례를 내리며 등장한다. 이어 HH-60 헬기가 날아온다.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가 출동한 것이다. '내 목숨을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레드베레 용사들의 활약으로, 조종사는 무사히 구출된다. 이처럼 탐색구조 시범비행은 공군의 조종사 탐색·구조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줌으로써, 공군의 작전이 단지 하늘 위에서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렸다.



단기기동 시범비행

과거 '서울 에어쇼' 하면 수호이 37의 '코브라 기동'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이제는 '서울 ADEX' 하면 중력의 영향을 무시하는 듯한 F-22의 단기기동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단기기동 시범비행은 항공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기동을 통해 조종사의 역량과 항공기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번 서울 ADEX 2017에서는 F-22를 비롯해 T-50, KT-1 등의 다양하고 화려한 비행이 펼쳐졌다. 또,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인 B-1B, C-17 등의 단기기동도 이어졌다. **AF**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에어쇼기획실 이병학 중령을 만나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한 블랙이글스, 멋지고 위용 있는 자태를 뽐낸 수많은 지상전시 항공기들,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준 각종 공군 홍보부스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참여한 서울 ADEX 2017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린 이들이 있었다. 거대한 행사이니만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국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감을 느꼈다는 에어쇼기획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서울 ADEX 2017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심초사하며 수고한 기획담당 이병학 중령을 만났다.

AF: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병학 중령: 안녕하세요? 에어쇼기획실 기획담당 이병학 중령(학사 91기)입니다. 에어쇼기획실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군요. 에어쇼기획실은 기획총괄팀, 비행운영통제팀, 심포지엄/총장회의팀, 의전팀, 공동운영본부지원팀으로 나뉩니다.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각 팀은 서울 ADEX의 주요 행사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기획총괄팀은 부대시설의 배치·에어쇼 일정 등을 구상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하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서울 ADEX의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AF: 기획총괄팀의 기획담당이신만큼, 서울 ADEX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서울 ADEX 2017의 목표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병학 중령: 서울 ADEX 2017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산수출 진흥을 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 ADEX 2017은 개막식 콘셉트부터 새롭게 했는데요. 전시장 내 단상 전면에 국산항공기를 일렬로 배치하여 초음속 항공기를 직접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 4개국 VIP에게 국산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항공기 소개와 더불어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운영·교육시스템 등을 알렸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공군의 위용을 보여주고 군의 발전상을 홍보하여 '믿음직한 공군'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랙이글스 조종석에 탑승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깜짝 이벤트에 더해 시범비행·축하비행·특수비행·지상 세레모니를 실시했으며, 실외에 육·해·공군의 전력들을 전시하여 강인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홍보했습니다.

셋째,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통해 군사외교를 활발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5개국 26명의 군(軍) 고위인사가 이번 ADEX 2017에 찾아왔으며, 참모총장급 회의는 7건, 부실단장급 회의는 18건에 달했습니다.

AF : 서울 ADEX 2017에 예전에 없던 일정이 눈에 띄었는데요, 학생의 날(Student Day)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날을 마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병학 중령 : 항공우주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 서울 ADEX 2017에서는 따로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운영했고, 공군 서울기지 주변 초·중·고등학생 및 항공우주 관련학과를 전공한 대학생을 초청했습니다. 총 5개 테마의 27개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를 '항공우주체험 Zone'으로 묶어 본격적으로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꾸고, 간접적이거나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VR과 시뮬레이션, 드론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했죠.

AF : 서울 ADEX 2017이 성황리에 마쳤는데, 기획담당으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병학 중령 : 행사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필리핀 교포 분의 요청으로 사진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촬영해드리고 느낀 점을 물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기회였어요. 에어쇼에서 전시장 배치까지, 구성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하시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AF : 마지막으로, 월간 '공군의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병학 중령 : 월간 '공군'은 공군의 일상적인 모습을 알리고, 국민 여러분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공군의 소통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 ADEX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만큼 공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F**





📷 서울 ADEX 2017 개막식 참석

참모총장은 10월 17일(화), 공군 서울기지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와 외국 공군참모총장, 국내외 방위산업업체 임원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 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3일(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215 부대와 제8217부대, 해군 822기지, 해병대 제6 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 없이 임무태세를 유지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최북단 지역임을 항상 명심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24시간 완벽한 감시 및 즉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2017년 공군본부 국정감사

참모총장은 10월 20일(금)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017년 공군본부 국정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은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목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공군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 속에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주관

참모총장은 10월 16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 항공우주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의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전 세계의 생활상과 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적의 위협을 비롯한 다차원적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을 통한 발전적 의견이 개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F**





November 2017 www.airforce.mil.kr



교육사, 공군 입영문화제

교육사령부는 10월 16일(월) 입영자와 가족들의 병역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경남지방병무청과 공동으로 공군 입영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전투사, 비행단 전술토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10월 18일(수) 비행단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비행단 전술토의를 실시하였다.



1전비, 군경 합동 대테러 전문화 사격 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10월 11일(수) 테러상황 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적을 제압하는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군·경 합동 대테러 전문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5비, 한글날 기념행사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0월 9일(월) 571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참여하였다.



8전비, 추석 연휴 병사 위로행사

제8전투비행단은 10월 4일(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연휴기간 동안 병사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합동차례, 윗놀이 등 위로행사를 실시하였다.



10전비, 활주로 폐쇄시 처리절차 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10월 19일(목) 활주로상 항공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을 실시하였다.



11전비, 이영하 예비역 장군 초청 강연회

제11전투비행단은 10월 19일(목) 올바른 안보관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영하 예비역 장군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15비, ADEX 행사장 합동 소방훈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0월 12일(목) 서울 ADEX 2017 행사 중 화재 사고에 대비한 행사장 민·군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하였다.



16전비, 전입신병 가족초청행사

제16전투비행단은 10월 13일(금) 전입신병 가족들이 공군과 병영생활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입신병 부모 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8전비, 주한무관단 부대방문

제18전투비행단은 10월 12일(목) 주한무관 및 가족들의 방문 행사를 실시하였다.



19전비, 공군본부 군종실 일행 부대 방문

제19전투비행단은 10월 16일(월) 천주교 쉼의 교구 및 청주 교구 신부, 신자들을 초청하여 부대 현황 소개를 실시하였다.



20전비, 비상급식 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10월 16일(월) 병사 식당 피폭 상황을 대비한 비상 취사기구 활용 훈련을 실시하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2

군견과 함께하는 따뜻한 늦가을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중사 위인태
(17비 정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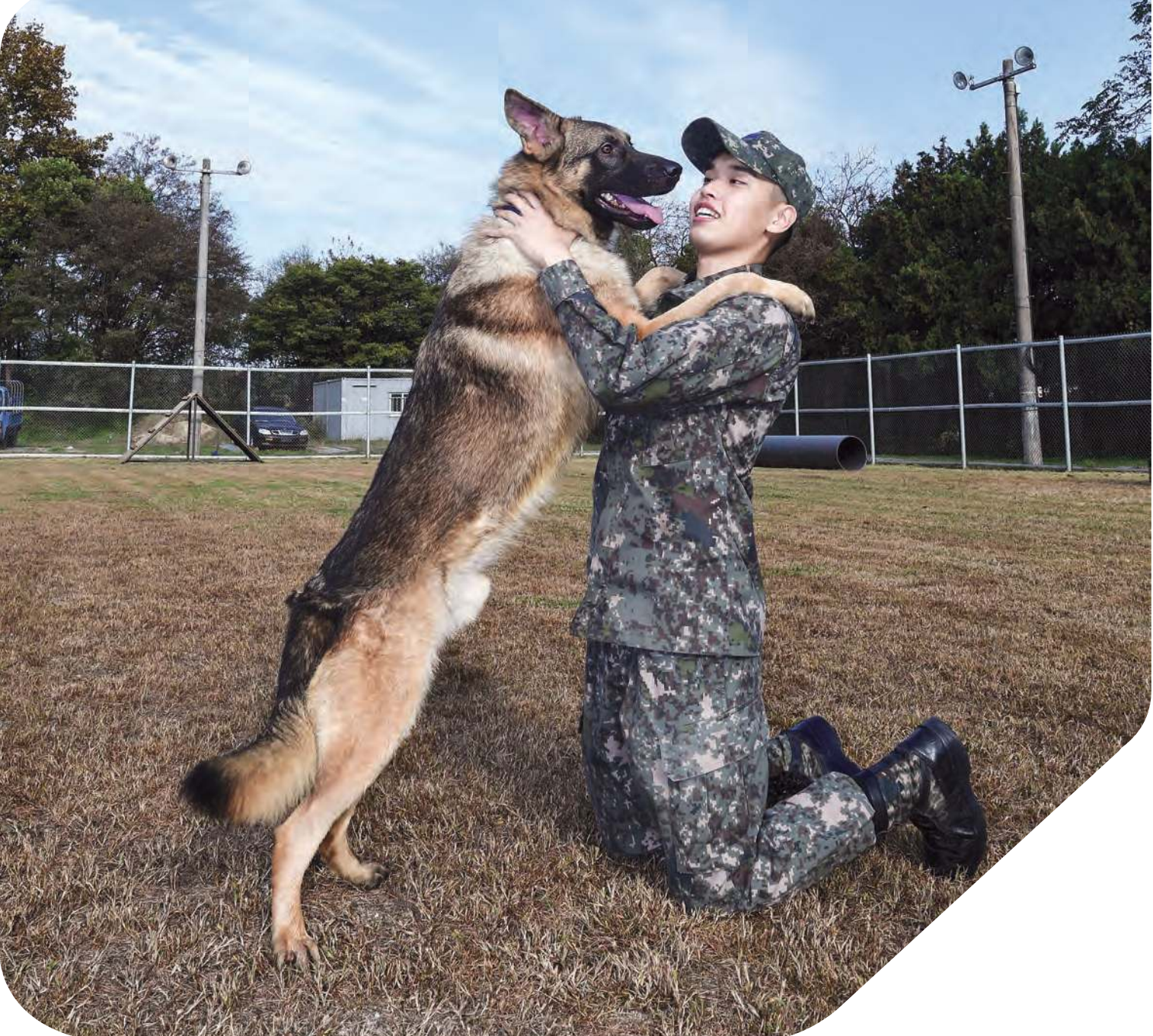


취재지원
중위(진) 김성현
(17비 정훈실)



군견과 함께하는 따뜻한 늦가을

예쁘게 물든 단풍이 떨어져 낙엽이 되고, 낙엽 태우는 냄새에 따뜻한 커피 못지않게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게 되는 계절. 이러한 시기에 동물이자 전우(戰友)인 특별한 존재를 통해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제17전투비행단의 군견 소대다.





▲▼ 장애물 훈련



17비 군견소대에서는 훈련이 한창이었다. 11월에 있는 '군견 경연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들 긴장한 눈빛이었지만, "그래, 넌 할 수 있어!"라는 듯 강한 확신을 주고받는 듯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기본적인 명령훈련을 거뜬히 수행해내는 것은 물론, 장애물 넘기와 폭발물 탐지 등 중·고등훈련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는 군견들. 다소 고된 훈련이었지만, 강인한 그들의 모습은 '믿음직스럽다'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전우(戰友)

군견은 인간보다 오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야간 순찰·폭발물 감시 및 탐지 등에 활용된다. 군'인(人)'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군'견(犬)'이 대신하는 것이다. 군견을 단순히 동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하는 '군의 전력'인 것이다. 다만 그들이 폭발물 탐지기 같은 기계나 장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감이 가능하다는 점. 평소에는 서로의 감정을 아는 듯 다정하게 행동하다가도, 유사시에는 용맹성을 드러내는 군견은 영락없이 군복을 입은 우리와 닮았다. 그래서 '전우'라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폭발물 탐지 훈련



마음의 친구, 군견



“군견은 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줍니다.”

군견관리병 최진립 일병의 말이다. 그는 군견을 가리켜 ‘고마운 존재’라고 표현했다. 몸살기운이 있는 채로 초소근무를 서게 된 어느 날, 근무를 서지 못 하면 같은 소대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최 일병은 꼭 참고 근무를 서는 중이었다. 그런데 함께 있던 군견 ‘루키’가 평소와는 다르게 애교를

부리며 쳐다보는 게, 마치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오직 루키만이 알아채고 그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훈훈한 마음으로 근무를 마쳤다고 한다.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고 울적해하고 있을 때는 간식조차 포기하고(!) 손을 핥으며 빙글빙글 돌면서 기운을 차리게 도와준 루키. 최진립 일병은 “동물은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 역시 동물로부터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며 곁에 있던 루키를 어루만졌다.

아직 이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헤어짐이 두렵고 아쉽다는 최진립 일병의 뒤를 이어 군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정윤 병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군견은 일반적으로 용맹하고 강한 견종으로만 그려집니다. 저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군견 소대에 배치 받아 처음으로 군견을 봤을 때는 무서워서 잘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한 탓인지, 군견도 제게 쉽사리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공군에서 주로 활용하는 군견의 종(種)은 셰퍼드와 리트리버다. 이들은 사교적이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강인하고 이상적인 체형을 지녔기 때문에 군견의 대표적인 종으로 꼽힌다. 늠름하고 다부진 그 모습을 보면, 이정윤 병장이 느꼈던 두려움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는 훈련 도중 군견이 다친 모습을 보고 군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다리를 다쳐 잘 걸지도 먹지도 못하고 힘없이 걷는 걸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들은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과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다가가기 군견 또한 저를 잘 따르더군요. 군견과 오랫동안 함께한 지금, 제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네 발의 전우라고.”



군견들의 오랜 친구, 군견소대장

강하고 용맹한 겉모습과 따뜻한 속마음을 가진 군견. 훈련하는 군견이 그를 닮은 것일까, 아니면 그가 훈련하는 군견을 닮은 것일까? 강인하고 위엄 있는 인상을 지닌 군견소대장 이홍익 상사는 월간 「공군」 취재팀을 친절하고 살갑게 맞아주었다. 오랫동안 군견소대를 담당했다는 그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AF: 군견과 함께하는 군생활이 다소 특수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점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홍익 상사: 군견을 다루는 일은, 다른 특기와는 다르게 생명이 있는 존재를 다루고 그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견은 기계나 장비와 달리 생명이 있는 존재이고, 이들 역시 사람과 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닌 존재입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곤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군견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하여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군견관리병을 따르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며 군 생활 중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감정과 훈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AF: 군견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군견소대장으로서 군견에 대해 갖고 있는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홍익 상사: 자칫하면 삭막하고 외로울 수 있는 군 생활을 군견과 함께하여 외롭거나 삭막하지 않다는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견관리병들이 이야기했듯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군견은 '임무를 위해 운용되는 장비'가 아니라 '생명과 마음을 가진 또 하나의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 군견소대장 이홍익 상사

죽지 않는다, 다만 또다른 품속으로 달려갈 뿐이다

어느새 훈련과 취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군견은 은퇴하고 난 뒤 어떻게 되나요?' 이홍익 상사는 이렇게 답했다.

“군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고 은퇴하는 군견은,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에 분양을 실시합니다. 교육사령부 군견훈육중대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신청자를 모집한 뒤 엄격한 심의를 거쳐 양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충성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낸 군견인 만큼, 군견이 사망할 때까지 사랑으로 보듬어줄 사람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죠.”

젊어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국민과 함께 뛰놀며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군견. 군견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바람이 찬 늦가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따뜻함을 느낄 것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3

'공군군악대+염광고등학교'
연습현장 속으로

글
이도아
(공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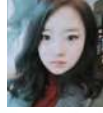


사진
중사 조수민
(홍보과)



당신의 가을밤,
어깨춤을 추게 할 우리는~

'공군군악대+염광고등학교' 연습현장 속으로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명산으로 단풍놀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일상에 치여 그것조차 쉽지 않은 당신을 위하여, 도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품격 있고 매력적인 음악회를 소개한다. 바로 2017년 11월 30일(여의도 KBS홀)에 있을 '공군 정기음악회(이하 정기음악회)'다.

정기음악회를 위해 공군군악대는 한창 연습에 매진 중이다. 공연 연습으로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고군분투 중인 군악대원들을 서울염광고등학교(이하 염광고)에서 만났다. 여기서 잠깐! 왜 취재 장소가 고등학교인지 의문을 가지신 독자님이 계시다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공군군악대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매년 음악회와 달리, 이번 정기음악회에서는 특별히 염광고 학생들과 합동 연주를 선보이기로 했던 것.

연습 장소 역시 해당 고등학교 내에 마련된 타악기 연습실이었다. 군복 입은 취재팀을 바라보며 재잘재잘 떠드는 몇 학생들을 지나, 연습실 입구에 들어섰다. 진중한 표정으로 연습에 매진한 그들의 손짓을 따라 제각기 울려 퍼지는 타악기의 향연. 선선한 가을이 무색하게도, 학생들과 공군군악대의 합동 연주 연습으로 그곳엔 한껏 고조된 열기가 가득했다.

정기음악회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인 자리라 그런지, 연습에 임하는 자세는 실전을 방불케 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를 여러 번. 이내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의 구령과 북채 소리에 따라 하나 둘



박자를 맞춰가던 학생들과 공군군악대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타악기가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 매력적인 악기였나 싶을 정도로, 다채롭고도 거센 울림이었다.

연습이 한바탕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주인공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정기음악회에 참여하는 그들의 심정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공군군악대 김창욱(24) 상병은 “이번 공연은 특별히 염광고 학생들과 함께하여 기대감이 큼니다. 서로 빨리 친해져서 원활한 소통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공군군악대와 염광고 학생들의 앙상블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고, 염광고 관악예술과 2학년 임정현(18) 학생은 “공군군악대와의 합주 공연이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인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여 본 공연에서 관중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보러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짧은 인터뷰를 끝으로 그들은 다시 연습에 돌입했다. 글로는 모두 전달할 수 없는 타악기의 오묘하고도 웅장한 매력은 오는 11월 30일, 공군 정기음악회에서 만날 수 있다. 공군과 염광고 학생들의 멋진 공연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11월 가을밤을 더욱더 웅장한 낭만으로 물들이길. **AF**



공군 IN

기획특집 4

제16회 병영문학상
'시' 부문 최우수작

글
국방부 근무지원단
공군의장대
병장 김재운

편집
중위 이준건
(홍보과)



제16회 병영문학상 '시' 부문 최우수작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제16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을 실시했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에는 미래의 작가를 꿈꾸는 수많은 장병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병영문학상 '시' 부문 최우수작으로 뽑힌 사람은 다름 아닌 공군 장병!

공군의장대 김재운 병장이 그 주인공이다.

쌀쌀한 가을, 별빛이 빛나는 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윤동주의 시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가을 밤하늘'을 소재로 <천체관측>이라는 시가 쓰였다. 다들 향초와 함께 은은하게 스텐드만 켜놓고 시를 감상해보자. 분명, '감성충만'한 밤이 될 것이다. **AF**

천체관측

김재운

어느 밤과 낮 사이에서 나는 별을 줍는 목동이었다
이번 역은 열차와 행성 사이가 멀었고
그럴 때면 나는 가스 추진기의 잔량을 확인하곤 했다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 나만의 온전한 도약 한 번
매질 없는 진동이 또 한 번 울렸을 것이다

여름은 무릎 아래쪽부터 시작되었다
가로등에서는 비가 쏟아졌다 주룩주룩
우산 없이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날이 있었고
발밑은 찢어진 빛의 콜라주가 되어
나는 젖었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겨울은 또 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나
눈꽃을 쏟아냈다 깔깔깔 도망기는 아이들
악의 없는 발길질에 침묵해야 하는 날이 있었고
따스한 별 아래 쉽게 녹아 사라질 친구라도
겨울의 한가운데에서도 춥지 않았다

어느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무엇하는 누군가였다
76년 하고도 2개월마다 찾아오는 빛꼬리 한 줄기
그 때가 온다면 나는 꼭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 자신만의 온전한 비행 한 번
외로움 없는 고독이
또 한 번
울렸을 것이다



공군 IN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글·사진
진재훈
(공감기자)



여름과 겨울 사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11월 축제 📍

맹렬한 더위를 보내기 무섭게 날이 쌀쌀해지고 있다. 이제 곧 손이 꽁꽁, 발이 꽁꽁 어는 Winter is coming!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전에 가족, 연인 또는 친구와 나들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 11월에는 많은 축제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공군이 추천하는 축제들을 소개한다!



기간 : 2017.11.03.(금) ~ 2017.11.19.(일)
장소 : 청계천(청계광장~관수교/1.2km)
주최 : (사)서울빛초롱축제 조직위원회
요금 : 관람비 무료(부대행사 참가 시 소정의 참가비 있음)

수도 서울을 은은하게 빛내는 ‘서울빛초롱축제’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산책길인 청계천에 형형색색의 빛까지 흐른다면 어떨까? 11월마다 청계천에 아름다운 빛을 수놓는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 ‘서울등축제’로 시작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매년 약 300만 명이 관람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서울빛초롱축제’는 해마다 주제가 다른 것이 특징. 올해에는 ‘서울에서 빛으로 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삼는다. 승부보다는 참여를, 경쟁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 한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한다는 취지다. 축제는 각각 주제등(燈), 기관 및 기업등, 지자체 및 해외등, 캐릭터등, 아트작가등까지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원등(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행사 또한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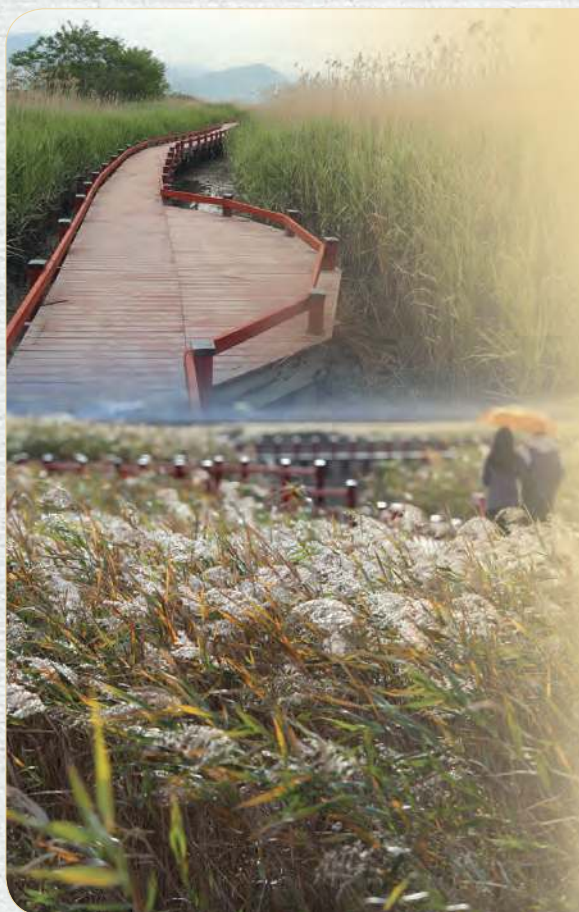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파주장단콩축제’

기간 : 2017.11.24.(금) ~ 2017.11.26.(일)
 장소 :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대
 주최 : 파주시
 요금 : 무료

오늘날 우리 밥상에는 동남아시아산 곡물과 유럽산 고기, 중남미산 해산물 등이 올라온다. 그야말로 글로벌한 식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단콩을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열리는 것이 바로 ‘파주장단콩축제’다. 프로그램은 알콩마당·달콩마당·놀콩마당·어울마당·농특산물판매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강 가요제나 장단콩요리 경연대회 등 매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속을 꽉 채운 웰빙 명품 파주장단콩처럼 알차게 짜인 축제에 참가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남도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 : 2017.10.27.(금) ~ 2017.11.12.(일)
 장소 : 강진만 생태공원(남포축구장), 강진오감동
 주최 : 강진군
 요금 : 무료

남도의 고을 중 하나인 강진군은 남도 여행객들에게 답사 1번지로 꼽힌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도자기 고을로도 유명한 강진은 가을에 5대 축제를 진행하는데, 강진군 축제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다. 축제가 열리는 남포마을 강진만 생태공원은 청정 갯벌이 펼쳐져 있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에서 해상 교역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해풍이 불어오는 드넓은 아지를 가득 메운 황금빛 갈대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태공원 인근에는 남도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가우도’와 도자기 고을로 유명한 강진군의 ‘고려청자박물관’ 등이 있어 더욱 보람차게 즐길 수 있다. **AF**





공군 IN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글·사진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



양낙규 기자의 공군 취재기 9편

먼지 한 톨 놓치지 않는다! '활주로 특공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공군 전투기와 민항기의 비행이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와도 같다. 민항기는 이착륙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동착륙시스템이 있지만, 전투기는 오직 조종사의 눈과 전투기의 계기에만 의지해야 한다. 활주로에 이착륙을 할 때마다 조종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전투조종사만큼이나 긴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투기의 성공적인 이착륙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전투기의 이착륙을 유도하는 장병들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활주로에 접어들자 노란색 대형트럭이 활주로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굉음을 내는 대형트럭은 고압으로 바닥에 물을 뿌리며 느리게 움직였다. 시설대대 전투기가 착륙할 때 생기는 타이어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한창 작업 중이었다.



공군의 제설장비 SE-88

전투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 평균 시속은 200km가 넘는다. 타이어 흔적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마찰력이 떨어져 전투기가 미끄러질 수 있다. 또, 활주로에 착륙을 안내해주는 숫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가량은 반드시 활주로를 청소한다.

또한, 공군은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도 쉴 틈이 없다. 활주로에 눈이 조금이라도 쌓이면 전투기의 이착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폭설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병기도 보유하고 있다. 바로 특수 제설장비인 'SE-88'다. 'SE-88'은 1950년대

공군이 사용하던 F-86 전투기의 엔진을 개조해 만들었다. 길이 20.3m, 너비 13.5m, 높이 4.33m. 겉모습은 불도저와 흡사하지만, 엔진에서 썩서 380도의 열기를 내뿜어 활주로에 쌓여있는 눈과 얼음을 단숨에 녹여버린다.

활주로 양끝에는 2,300여 개 등화시설도 갖춰져 있다. 전투기들이 야간비행을 마치고 귀환할 때 유일하게 의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정기적으로 등을 교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투기의 비상착륙을 위한 시설 점검도 필수적이다. 전투기가 착륙할 때 제동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때 전투기는 꼬리 부분의 후크(Hook)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하고, 활주로 끝단에 있는 초과저지장비 BAK-12에 후크를 걸어 전투기를 멈추게 된다.



다음날 다시 찾은 활주로에서는 운항관제대 조류퇴치반 요원들이 활주로 점검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활주로는 전투기 비행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다. 일명 '배트(BAT: Bird Alert Team)'반'으로 불리는 조류퇴치반 소속 장병 10여 명은 길이 3km, 폭 40m의

활주로에 일렬로 섰다. 장병들은 양손에 빗자루와 쓰레박기를 들고 바닥을 보며 무엇인가를 유심히 찾았다. 조그마한 돌맹이나 나사 등 이물질들을 수거하기 위한 것이다.

운항중대장은 이를 설명하며 “활주로 F.O.(Foreign Object: 이물질) 제거의 경우 겨울에는 추위를 참고 눈을 치우며, 여름에는 50도가 넘는 열기를 견뎌야 한다.”며 “날씨와 전쟁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F.O. 제거 작업이 끝나자 장병들은 엽총을 하나씩 메고 활주로에 다시 나타났다. 전투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조류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엽총으로 쫓기 위한 것이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활주로의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항공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까지 감안하면 활주로는 그야말로 활활 타는 장작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장병들은 활주로에 날아드는 새무리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기저도 묵직한 엽총을 받아 공포탄을 발사했다. 공포탄은 ‘퉁’ 하는 소리와 함께 50m가량 날아가 공중에서 하얀 연기와 폭음을 내며 폭발했다. 새들은 곧 흩어졌다.

거대한 활주로 이면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활주로 특공대들’이 있다는 것을 봤다. 이를 묻기가 어려울 만큼 열심히 등화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한 장병은 “전투기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를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 그들의 자부심에 수긍이 갔다. **AF**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이유라
(공감기자)



사진
중사 조수민
(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이준건
(홍보과)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조인, 조인!

鳥人

제18화

공군을 통해 따뜻한
온기전도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온기제작소 대표 '조현식'(병747기)

프로로그

울긋불긋 단풍을 마주할 것을 기대했다가 칼바람의 심술을 만난 가을의 어느 날. 성큼 다가온 추위에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도 잠시. 늘 포근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사람을 만나 취재진의 마음속에 온기가 샘솟음을 느꼈다.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지만, 한편으론 아날로그 감성 또한 갈구하는 현대인들. 0과 1이 교차하는 디지털 신호 속에 살면서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온기제작소'의 조현식 대표를 만나보려 한다. 온기제작소는 고민편지를 받아, 익명으로 손편지 답장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벌써 우리들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지 않는가? 조금 더 깊게, 사르르 녹아들어가 보자.



공군을 만나 꽃을 피우다

조현식 대표는 2014년 12월에 입대했으며 방공관제사령부 정훈공보실에서 군생활을 마쳤다.

공군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하는 만큼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공군의 병영문화에 반해, 주저하지 않고 공군에 지원했다고 한다.

군 복무시절도 포함하여 그의 경력은 특이함의 연속이다. 전공은 국제학부이지만 부전공으로는 컴퓨터 공학을 이수했고, 입대 전 꿈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이었다. 봉사에도 관심이 많아 야간학교에서 나이드른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육봉사를 실천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이색적인 경력은 마침내 군에서 알맞게 버무려져, 온기제작소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복무시절 동안 많은 고민을 거쳐 기획하게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평소 책과 가까이 지내던 그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 우울함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모두가 힘든 것일까'라고 생각한다. 그가 찾아낸 해답은 '내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는 것. 그러던 중 우연히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접했고, 이를 현실로 옮기고자 다짐한다.

그리고 그의 다짐은 공군을 만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공군에 입대한 그는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주는 으뜸병사로 활동했는데,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

- 1) 과거와 현재를 잇는 허름한 잡화점에서 세 명의 도둑들이 우연히 조연을 구하는 편지를 받아 마법의 우편함을 통해 답장해주는 내용의 일본 소설.

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또,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보다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일어서길 바라는 것. 소설은 가르쳐주지 않은, ‘듣는 힘’의 중요성을 그는 공군에서 배웠다.

특히 그는 군 생활 중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병사와 부대 상황 사이에서 작은 갈등이 있었을 때, 중간자로서 병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상부에 전달하며 서로 조율하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정훈병으로 업무를 하면서 영상편집과 사진촬영의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통해 온기제작소를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그에게 공군이란 새로운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진심을 담아 답장을 쓰는 조현식 대표



‘온기제작소’의 상징 ‘온기우체통’

온기를 더해 진심을 나누다

그가 몸담고 있는 ‘온기제작소’는 2017년 2월에 만들어졌으며, 편지에 답장해주는 온기우체부 60여 명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좇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는 사회의 어떤 면을 바라보고 온기제작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SNS가 발달할수록 우리 사회에 우울함이 퍼져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 결핍이 우리 사회에 고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요. 고민을 털어놓고 들어주는 ‘온기우체국’을 통해 사회에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의지에 감격한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났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라 불릴 만큼 엄청난 소통의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익명을 이용한 아날로그적 손편지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이번에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진심을 담고 싶어서입니다. 온라인상의 소통은 표면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NS는 힘들고 지친 마음보다는 예쁘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 곳이라고 느꼈죠. 손편지로 고민을 털어 놓고 답장을 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드러내고 싶더라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마음속 고민을 깊이 담아두기에 급급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고민을 들어줌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심하시라. 우리 곁에는 온기우체부와 온기제작소가 있다.

조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고민을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삼청동 감고당길(덕성여고 앞)과 시청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연희동(독립서점 유어마인드 앞)에 위치한 ‘온기우편함’에 직접 편지를 넣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온기제작소’(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포은대로 442-18 온기제작소)로 직접 고민편지를 부치는 것이다. 혹시나 매서운 추위에 마음마저 시리다면, 한 번 이용해보길 바란다.



독자에게 전하는 온기의 메시지

“요즘은 갈수록 조금씩 고독감이 커지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지만 선뜻 꺼내기 힘든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온기제작소와 온기우편함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취업이라든가 사랑, 진로 등 어떤 주제여도 좋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마음을 담아서 답장해드릴게요.”

어떤 주제든 괜찮으니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달라는 조현식 대표. 그는 이어서 공군을 위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공군으로 복무한 것은 사회에 나왔을 때 큰 자부심이 됩니다. 어디서 공군출신을 만나면 괜히 반갑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공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도 크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하사 김재겸
(홍보과)



사진
하사 윤희준
(11비 정훈실)



서상원

병 758기

항공소방

2015. 11. 16.

(입대처: 트윈이스 - 00H-AHH함대)

항공소방병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24시간 출동대기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설비 및 소화기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작전 중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실제 항공기에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조종사를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장비를 많이 들고, 인명구조를 위해 꾸준한 체력 단련을 하기 때문에 입대하기 전보다 몸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또, 잘 알지 못했던 화재진압 요령과 대피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10월 피해복구전술평가대회에 나가기 위해, 두 달가량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두꺼운 방화복에 10kg에 달하는 개인 장구를 메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에 매진하다보면, 몸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마디

대영아! 군대는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 군 생활에서 하나라도 얻어 가려고 노력하며 지내는 게 어떨까? 좋은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도 있어. 물론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지. 전국 곳곳에서 모여 11비 소방중대에서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생각해. 같이 생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서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즐겁게 지나자!



신.고.합.니.라

김태영

병 995기

항공소방

2017. 4. 17.

(입대곡: 아이유 - 팔레트)

항공소방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입대할 때 공군 소개 책자를 살펴보다 항공소방이 제일 눈에 띄어서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방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그냥 소방이 아닌 '항공소방'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희생 정신'이 멋있게 느껴져서 지원했습니다.

항공소방병으로서 업무 숙달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실제로 업무에 임하면서, 소방 업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먼저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우고, 선후임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몸 다치지 않게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대하기 전 전공했던 과목이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서상원 병장님 같이 멋지고 좋은 분을 만나서 군 생활이 재밌었는데, 전역을 하시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대에 배치 받고 같이 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 추억은 잊지 못할 겁니다. AF



그대의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가을이 되어 마음이 외로워지거나 쓸쓸해지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가을 탄다'고 표현한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고, 인간은 모두 외로운 존재다. '고독'이라 불리는 외로움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 상태와 정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외로움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자.

외로운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외로움을 느낄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갑작스레 눈물이 날 수도 있으며, 잠이 오거나 반대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람마다 증상은 다양하다.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마음의 병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인간은 모두 외롭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고 일상이다. 만약 문득 외로움을 느끼는 신호가 왔다면 나에게 대해서 집중할 기회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 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내 삶에 개선할 점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그 감정을 나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시킬 것인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나만의 외로움 극복법 찾기

1. 나를 먼저 이해하기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인지,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 마음을 따라가 보자. 천천히 산책하거나, 평안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이나 독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자.
2. 충분히 자고, 잘 먹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불면증이 있다면 낮 시간 동안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진정한 친구 만들기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외로울 수 있다. 마음을 주고받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면 말이다. 소수라도 좋으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자.
4. 건강한 공간 만들기
내가 자주 머무르는 주변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자. 오랫동안 한구석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5.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기기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부탁에 대한 거절이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모든 걸 YES라고 답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6. 감사한 것을 찾아보기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낫다. 감사한 일들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감사할 상황들을 상상하며 웃어보자.
7.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주자
당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당신과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주위 가족이나 동료들 믿고 지지해준다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AF**



글
공군 예비역 대령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내면 속의 자아를 찾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적과 아군의 상황을 제대로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이 말을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재해석하면, 자신의 특성은 물론 상대방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처신한다면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갈등이 야기돼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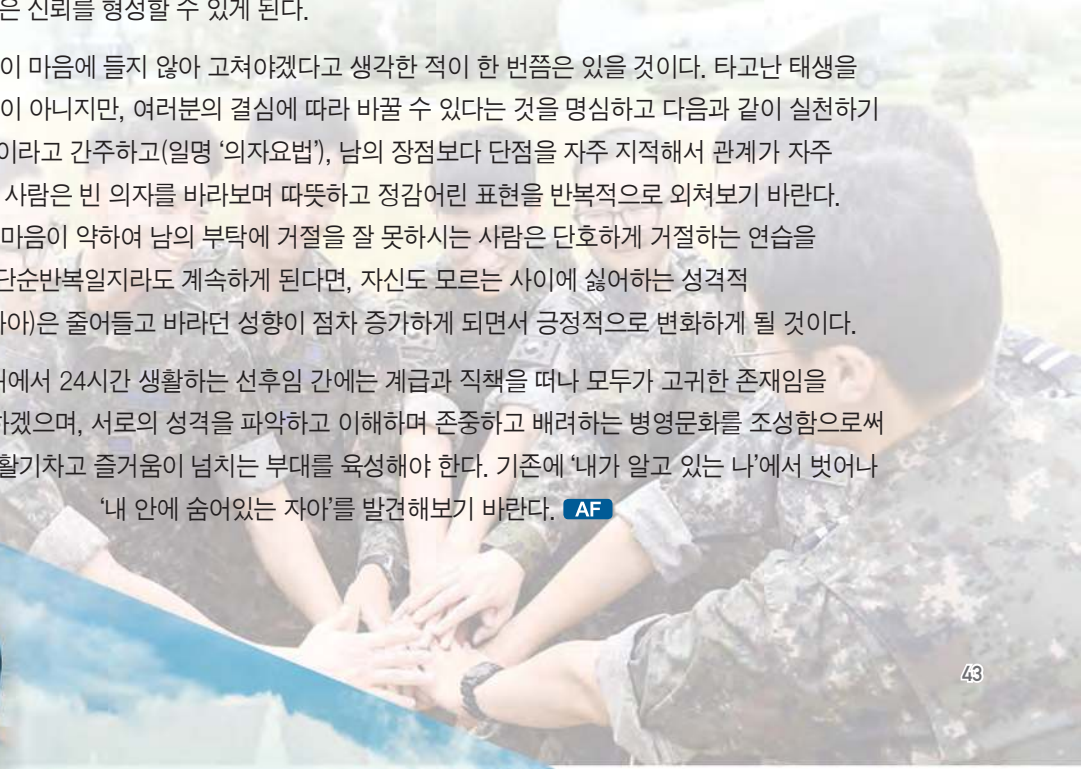
병영생활에서 우리 장병들이 자신은 물론 동료들의 내면 속 자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상하관계나 동료관계에서 남을 배려해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생활관에서 매일 만나는 선임병의 성격유형, 업무스타일, 개인적인 취향을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의 내면을 알지 못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급기야는 반목과 대립으로 치달는다.

이처럼 상하 간에 서로 다른 성격유형일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의 상관이나 선임병이 성격적으로 엄격하고 정확하며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유형일 경우,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업무적으로 완벽성을 기해야 한다.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다만 이런 유형일수록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관의 유형과 정반대가 되는 자아를 지닌 부하나 후임병의 경우, 성격상의 부조화를 이루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의 상관이나 선임병이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는 유형이라면 당신은 행운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유형은 기본적인 업무에만 충실하다면 업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기 매우 용이하다.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두터운 신뢰가 쌓이면, 평생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관계로도 발전될 수 있다. 변화를 좋아하고 창의력을 추구하는 유형의 상관이나 선임병에게는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궁금증의 해답을 제공하면 높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장병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타고난 태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결심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기 바란다. 빈 의자가 사람이라고 간주하고(일명 '의자요법'),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자주 지적해서 관계가 자주 소원해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정감어린 표현을 반복적으로 외쳐보기 바란다. 반면에 심성이 곱고 마음이 약하여 남의 부탁에 거절을 잘 못하시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반복하기 바란다. 단순반복일지라도 계속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싫어하는 성격적 특성(내면속의 자아)은 줄어들고 바라던 성향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영 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선후임 간에는 계급과 직책을 떠나 모두가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겠으며,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활기차고 즐거움이 넘치는 부대를 육성해야 한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나'에서 벗어나 '내 안에 숨어있는 자아'를 발견해보기 바란다. **AF**





| Air-power Report |

중국의 첫 자국산 제트 훈련기

: 셴양 JJ-1

PC게임 <월드 오브 워플레인>의
셴양 JL-1A-37

2차 대전이 끝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46년, 소련에서 영국의 롤스 로이스 닐(Roll-Royce Nene) 엔진의 복제 작업이 성공한다. 소련으로부터 이 엔진을 단 MiG-15를 원조 받은 중국은 또다시 카피를 시도하고, 워펜-5(渦噴-5) 터보제트 엔진을 국산화하여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 이어서 중국은 기존 소련제 전술기로부터 흡수한 지식을 응용하여 자국산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다. 그 결과물인 초기 습작 중 하나가 지셴샤오(徐舜壽: 1917~1968)가 설계한 셴양 JJ-1(瀋陽 JJ-1)이었다. 흥찬 503이라고 불린 이 계획을 통해 완성된 항공기는 인민해방공군(PLAAF)에서 고등 제트 훈련기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3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추가 개발이 포기되면서 추억에 이르지 못했다.

설계와 개발

공산주의 증주국이자 맹주를 자처한 소련과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동족상잔의 국공 내전을 거쳐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한 중국은 처음에는 혈맹 관계였으나, 양국의 관계는 스탈린이 사망하자 이데올로기 차이와 국경 마찰로 인해 점차 냉각된다. 1950년대 중반이 지나자 소련은 자국의 고급 항공 기술을 중국인들에게 넘기려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빼내기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인민해방 공군(PLAAF)의 전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항공 기술 습득은 필수적이었고, 심양(瀋陽)에 세워진 국가 항공연구소(國家航空研究所)에서는 먼저 제트 훈련기를 국산화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전투기까지 완전히 국산화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 동체를 제작 중인 JJ-1

JJ-1의 프로토타입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 기체들을 참고해 만들어졌지만, 독자적인 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23mm NR-23 기관포 1문이 내장된 기수는 소련제 제트기와는 달리 에어 인테이크가 없었고 대신 동체 옆으로 옮겨져 설치되었다. 날개 앞에만 약간의 후퇴익이 주어진 테이퍼형 주날개 역시 개발 책임자인 지센사오가 결정해 채용한 것이었다.



▲ 완성된 JJ-1

중국 공군의 첫 발자국

3대의 원형기 중에서 2대는 거의 비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완성되어 지상 시험을 시작했지만, 당 중앙에서 개발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작업은 중지되었다.

JJ-1이 포기되면서 중국은 곧바로 독자 개발보다는 '역설계를 통한 단좌 전투기의 국산화'로 목표를 낮추어 잡는다.

완성된 시제기는 제대로 된 시험 비행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노선에 방치되었지만, 2호기는 경전투기로 개조하는 작업이 계획되었다고 한다. 이는 PC 게임 <월드 오브 워플레인>에서 셴양 JL-1A-37로 재현되고 있다.



▲ 출고 기념식을 위해 격납고에서 나오는 JJ-1의 1호기



▲ JJ-1의 세부 디테일과 보존 중인 0101호기

이처럼 JJ-1은 양산된 기종이 아니다. 본격적인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전술기로 태어나지도 못했다. 중국 최초의 자국산 제트기라는 영예 또한 MiG-17을 베껴 만든 젠-5에게 빼앗겨 버린 JJ-1은 볼품없고 보잘 것 없는 항공기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게 3톤 남짓한 이 작은 훈련기야말로 처음으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자체 기술로 설계되고 제작된 제트기로, 현재는 스텔스 전투기를 갖춘 중국 공군의 시작이요, 첫 발자국이었다. 오늘날 오직 한 대만 남은 JJ-1의 원형 1호기인 "0101"은 베이징에 소재한 소양산 항공박물관(北京小湯山航空博物館)에 실내 전시되어 있다. **AF**



공군 재무관리본부

주택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현재의 일과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설레면서도 막연한 일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영위하려면 다양한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결혼하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을 재무순위의 첫째 목표로 삼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시세차익을 통해 자산의 증식이 수월하였지만, 요즘은 무조건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다 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고 현금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니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고 은퇴·노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죠. 이번 호에서는 노후대비 금융상품과 함께 고민하기 좋은 주택연금 활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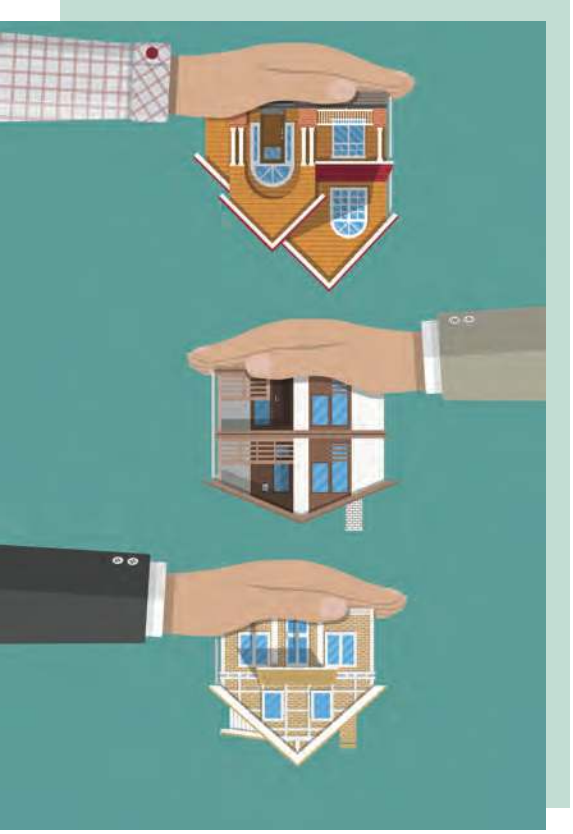
2009년 미국의 모지기론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도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이어진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 때문에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훗날 집을 처분해서 값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하다 보니, 가계마다 수입의 고정부분을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에듀 푸어(edu poor, 교육비를 대느라 빚을 내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40~50대 가정에서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여 은퇴와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일상 생활비를 줄이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AF 피시기가 바람직합니다. 정착은퇴의 시점은 짧아지고, 오래 사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집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에 언제든 정착을 고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착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주택연금 이용하는 방법
 주택연금은 상시 지급되는 연금과 원금 반환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 반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정하며,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주택연금은 상시 지급되는 연금과 원금 반환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 반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정하며,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원금 반환을 선택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주택연금제도의 특징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Hollywood English

윈드 리버



제가 번역한 2부작 영화 <킬빌 Kill Bill> 1편에서는 도입부 막판에 이런 문장을 띄웁니다. 'Revenge is a dish best served cold.'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가장 맛있는 요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무슨 함의(含意, connotation)를 가진 걸까요? 이 글 뒤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테일러 셰리던이 감독한 <윈드 리버 Wind River>는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띄웁니다.

'모든 실종자 통계는 다 확보돼 있다. 예외가 있으니 북미 원주민 여성 실종자다. 그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The missing persons statistics are kept for every demographic except Native American Women, whose numbers remain unknown).'

이 영화는 북미 원주민 여성의 피살 사건을 놓고 범인을 잡으려고 출동한 연방요원, 관할지역 경찰관, 그리고 야생동물 사냥꾼의 '차기운' 복수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무대는 미국 와이오밍 주 원주민 보호구역인 윈드 리버(Wind River Indian Reservation). '어류 및 야생 동물국(US Fish and Wildlife)' 요원이자 전문 사냥꾼(tracker)인 램버트는 마을에서 6마일 떨어진 설원에서 한 여성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피해자 신원은 18살의 마을 소녀 나탈리. 수사를 위해 투입된 신참 FBI 여성 요원 배너와 관할 경찰관 벤은 부검을 통해 나탈리가 성폭력 희생자임을 알아냅니다.



램버트는 자원해서 수사에 협조합니다. 그가 밝혀낸 나탈리의 사인(死因)은 폐출혈(pulmonary hemorrhage)입니다. 영하의 혹한 속에서 도망치느라 극도로 가빠진 호흡으로 인해 흡입된 차가운 공기가 소녀의 폐를 얼려버린 것입니다. 램버트가 수사 협조를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 피살된 자기 딸의 사인도 똑같다는 점입니다.

수사팀은 나탈리에게 남자 친구가 있었고, 이름은 매트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에게로 수사망이 좁혀집니다. 그런데 램버트는 깊은 숲에서 또 하나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알몸인 채 동사한 남성입니다. 수사 결과 그는 인디언 보호구역 인근의 공사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그가 바로 매트였습니다. 램버트는 무전을 쳐 다급히 배너에게 그 내용을 알립니다. 한편, 공사에 출동한 배너와 경찰관들은 공사장 보안 요원들과 예상치 못한 총격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배너는 목에 총상을 입고 경찰관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배너마저 목숨을 잃을 찰나, 숲에 잠복한 램버트의 화기가 '인간 짐승들'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그는 한 명만 남겨놓고 공사장 보안 요원들을 모조리 사살합니다.



1969년에 나온 <대부 The Godfather>에서도 대부 돈 콜레오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가장 맛있는 요리와 같다(Revenge is a dish that tastes best when it is cold)." 서두에서 소개한 문장과 똑같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해를 끼친 자에게 곧바로 복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되갚으면 그 결과가 더 만족스럽다(Vengeance is more satisfying when exacted some time after the harm that instigated it)'입니다.



'Nothing is harder to track than the truth(진실보다 추적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윈드 리버>의 광고 문구입니다. 야생동물 사냥꾼이자 추적자(tracker)인 램버트는 그가 죽이지 않고 남겨둔 한 마리 인간 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놈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놓는 대신 램버트는 나탈리를 위한 복수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차갑게 식혀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의식을 말이지요. 그 방법은 스포일러여서 가려두기로 합니다.



이 작품은 '후더닛(whodunit)'입니다. 살인범죄를 다룬 스릴러 소설, 연극, 혹은 영화(A story about a crime(usually murder) presented as a novel or play or movie)'를 가리키지요. 테일러 슈리던은 그가 각본·감독을 담당한 이 작품으로 올해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The Certain Regard)'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과의 전쟁을 다룬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Sicario>에선 각본을 담당해 크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스마트폰 삼국지! 그들의 비밀병기는?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기념 모델인 아이폰X와 아이폰8이 11월에 출시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노트8을 공개했고, LG는 V30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두 번째 스마트폰, 픽셀2를 공개했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공개될 때마다 놀라운 신기술로 무장한 제품들이 우리 삶에 서서히 다가서죠. 거대 그룹의 빅 매치 속에 눈에 띄는 신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폰X로 무선충전 시대 대장화

애플이 새로운 모델과 함께 발표한 신기능 중 하나는 '무선 충전 기능' 탑재입니다. 일찌감치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해 출시한 바 있습니다. 경쟁사가 무선 충전을 꾸준히 선전하는 와중에도 유선 충전을 고수했던 애플이기에, 애플만의 고유 무선 충전 방식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죠. 하지만 아이폰8과 아이폰X에 탑재된 무선 충전은 세계무선충전협회(WPC)의 국제 표준인 Qi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 때문에 사용자는 꼭 애플의 무선 충전 패드가 아니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제품으로 아이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본격적인 무선 충전 선전 포고로 인해 스마트폰 유저들은 이제 '충전 잭'이 없어 배터리로 고생할 일은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식당, 호텔과 공항, 자동차엔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될 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신기술, 폴더 스크린?

애플이 아이폰의 베젤과 지문 인식 홈 버튼을 없애고 얼굴 인식 '페이스 ID'를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발표할 신기능은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직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공식 모델은 아닙니다만, 내년 초 갤럭시는 '접이식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2018년이다.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확실히 극복할 때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기에 내년에 획기적인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 나오리라는 예측에 힘이 실렸죠.

사진은 출시 예정 제품이 아니라 산업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본 '컨셉트 이미지'일 뿐입니다만, 삼성전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접어서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출시된다면 앞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겠네요!

구글의 하드웨어 경쟁, '픽셀'과 새로운 액세서리

구글이 두 번째 스마트폰 '픽셀(PIXEL) 2'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포털 그룹이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이미 구글은 인공 지능(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강력한 정보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기에,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장의 후발 주자라는 사실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10월 첫 선을 보였던 'PIXEL' 스마트폰 이후 1년 만의 새 모델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렌즈'를 탑재한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지나가다 전단지를 보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인식해 저장하고, 유명한 건축물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면 관련 정보를 찾아 주는 '딱' 소리 나는 어시스턴트 기능이죠. 마치 영화 <킹스맨>의 스마트 안경 같죠?

또, 구글의 새 스마트폰 발표와 함께 화제를 모은 신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무선 이어폰 'Pixel Buds(픽셀 버드)'. 애플의 에어팟에 도전장을 내민 제품입니다. 이어폰에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장착됐습니다. 간단한 검색과 지도 찾기, 알림, 문자 읽기 등을 음성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해 전 세계 40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기능이 화제. 외국인의 목소리를 이어폰 마이크가 감지하고, 스피커가 원하는 언어로 통역합니다.

마치 국가 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각 기업의 스마트폰 경쟁 시장. 영화에만 나오던 신기한 기계들이 점점 일상 속에 녹아드는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신기술이 등장할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군요. **AF**



생각하는 그림

생선 한 마리로 감동을 준 정조의 리더십

#1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사마천이 사기(史記)를 통해 강조한 말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초적 본능이자 욕구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밥 한 그릇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구하지만, 무능한 지도자는 밥 한 끼로 인심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정조는 이를 잘 아는 임금이었습니다.



#2 정조는 조선의 문화적 부흥을 이끈

인문학적 군주였지만 무예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행궁 활터에서 조선군의 전투용 화살인 유엽전을 쏜 정조는 50발 중 무려 48발을 맞혔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정조는 함께 활을 쏜 호위부대의 군관 오의상에게 기념으로

조기 한 마리와 웅어 한 두름(스무 마리)을 하사했습니다.

#3 임금님이 기념품으로 하사한
조기 한 마리와 웅어 한 두름을 받은 군관 오의상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일국의 국왕이 하사품으로
겨우 생선 몇 마리를 주었다고 불만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임금님 하사품이니 가문의 영광이라며
감격했을까요?



#4 조정의 관리가 임금님이 내려주신 물고기를
받아 들고 퇴근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값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 하사품을 받아 들고
퇴근하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정조는 조정의 관리들에게도
수시로 생선을 상으로 하사했습니다.
그는 작은 생선 하나로도 부하를 격려할 줄 알고,
사소한 것들을 배려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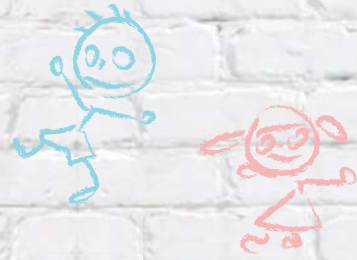
#5 백성에게 인심을 잃는 것은
누룽지 한 덩어리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 고전인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로,
아랫사람들에게 누룽지조차 나눠주기를
아까워하다 인심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6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별것 아닌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배려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주변은 물론 스스로도 행복해지면서
보다 나은 사회,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AF

담벼락

그 신아홉 번째 이야기 「하늘」



방공관제사
제8386부대
병장 박근서

하늘 아래 첫 부대, 나의 하늘



우리 부대는 해발 1,450여 미터에 위치한, 이른바 하늘 아래 첫 부대다. 대한민국 군부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런 부대에서 기동타격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을 보고 있다.

입대 전 하늘은 그저 늘 거기에 있는 병풍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부대에 온 뒤 고층빌딩이 시선을 차단하지 않는, 머리 위에서부터 지평선 저 멀리까지 넓게 펼쳐진 하늘을 보게 됐고 하늘에 관한 내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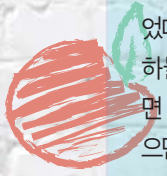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거대했다. 아파트 12층이라는 꽤 높은 위치의 우리 집에서도, 하늘보다는 지면의 건물들이 더 많이 보였다. 하지만 천장이 사라지고 시야가 트이니 하늘은 정말 거대했다. 땀 뚝뚝이 나는 시원한 색감의 하늘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졌다.

하늘의 색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다.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새벽하늘의 짙은 청색. 마음 한구석의 깊은 곳을 찢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노을의 붉은빛.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하늘빛, 49억 년을 보아도 질리지 않을 우아한 색감. 하늘을 창조해 지붕으로 주신 신의 미적 감각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됐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늘은 밤하늘이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도시의 네온사인 없는 부대의 밤하늘은 정말로 별이 쏟아질 것 같다. 새까맣게 물드는 주변 산봉우리 사이에서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이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여 우울한 날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밤하늘에 얽힌 특별한 경험도 있다. 새벽 순찰 중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은 꼬리를 단 무언가가 부대 하늘 위에 떠 있었다. 비행단에서 야간 비행을 본 적이 있던 나는 그것이 전투기인 줄 알았다. 놀라서 무전을 치려 했으나, 오래 항공기가 지나갈 때 나기 마련인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손을 멈췄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유성이었다. 주홍빛 아름다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는 유성. 나는 말문을 잃었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저 빛의 특성 때문에 그런 색으로, 공기마냥 내 머리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 볼수록 스스로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촌스럽지 않으면서 평생 봐도 질리지 않을 색을 고르기 위해 밤새 고심한 것 같은 색채. 마음이 힘든 날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것은 저마다의 색깔로 답을 주었다. 산으로 둘러싸여 주변이 온통 어두워지는 밤이면, 거대한 우주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느껴지는 안락함과 안도감. 나는 하늘 아래 첫 부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됐다. 어떤 천재 발명가나 억만장자도, 애인을 위해 이런 천장을 선물할 수 없으리라.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힘



제18전비
항공정비전대
병장 강병준

2015년 겨울,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 입대를 다짐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희망 특기를 입력하는 지점에서 잠시 고민에 빠졌다. 고등학교 때 기계과를 전공한 나는 두말할 것 없이 기계특기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바로 '항공기정비병'이었다. 기계로 가공하고 설계도를 그리는 게 익숙한 나에게 새로운 분야인 '항공기정비'는 꽤나 매력적이었고, '도전'정신으로 당당히 지원했다. 그렇게 합격과 함께 2016년 2월 14일 입영하여 6주간의 모든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기계정비라는 특기를 부여받았다.

특기학교에서 기다리던 기체정비 수업을 들었다. 생소한 것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설렜다. 기중시험을 보고 F-5기종을 공부했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특기학교에서 받은 교육들로 '하늘'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평소엔 그냥 의미 없이 올려다본 하늘이 '내가 지켜야 할 공간'이 된 것이다. 최종시험으로 제18전투비행단으로 배속됐고, 처음 듣는 엄청난 전투기 이륙 소리에 공군이 된 것을 실감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선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항공기를 정비하게 될 것을 상상했는데, 선임은 나에게 행정병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순간 혼란이 왔다. 현장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기에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임은 이런 반응을 처음 접한 듯했다.

먼저 선임에게 나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행정업무는 적성에 맞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고. 이에 선임은 답했다. "우리처럼 기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후에 현장 경험은 할 수 있어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야. 어쩌면 아예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역설적인 이 말에, 나는 행정병이 되기로 결심했다.

생각과 달리 행정병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러 행정 업무와 더불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공군으로서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었다. 하늘을 지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하는 업무들이 최종적으로는 영공방위에 도움이 되는 업무들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씩 퍼즐이 맞춰졌다. 모든 직책은 최종적으로 영공방위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전우가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당당히 지금 위치에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 일이 바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다.



2여단
제8988부대
상병 김용기

하늘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봅니다. 해 뜨기 전 이른 아침, 하늘 한편에서 서서히 번져오는 아침 해의 신선한 느낌. 해가 난 뒤 옅은 하늘빛 위에 점점이 떠 있는 흰 구름들. 간밤에 심한 폭풍우가 들이쳤던 어느 새벽, 검붉은 하늘 구름들 사이 언뜻언뜻 내비치는 파란 하늘빛이 만들어낸 멋들어진 조화. 어떤 천재 예술가도 그릴 수 없는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고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낮에도 이따금 하늘을 보고 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리 내어 말을 건네진 않지만, 하늘은 내 앞에 드넓게 펼쳐진 그 자체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 같은 한없는 평화로움을, 하늘을 통해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전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은 없다'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밖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쳐다봐 봤자 비가 들이닥치는 시커먼 하늘일 텐데, 굳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천둥소리, 온 세상을 뒤 흔드는 굵은 빗줄기, 하늘 이쪽저쪽에서 예고도 없이 수시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을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천둥, 번개와 격랑들이 하늘의 넓은 품속에서 한동안 거세게 요동치다 지나간 뒤에도 하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요한 평화의 미소를 내게 던져줍니다. 하늘의 미소에는 모든 인내와 포용, 그리고 간밤에 수없이 하늘에 금을 그었던 상처들을 스스로 치유한 놀라운 경지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폭풍우가 친 뒤에 하늘은 그리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없듯이, 고통과 갈등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삶에서 순한 양과 예쁜 토끼만 만날 수 있을까요? 때론 알피도록 약은 여우도 만나고 난폭한 짐승도 만나겠지만요. 그래서 삶 자체를 수행이라고, 어느 구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딪치는 모든 이가 우리를 저절로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가 내리는 하늘도 하늘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도 하늘이듯, 갈등이 있는 삶 또한 우리네 삶입니다. 하늘은 그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AF**



책 읽는 공군



자존감 수업

윤홍균 지음
심플라이프 펴냄

20대의 청년들이 2년이란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얻어가고 사회의 첫걸음을 떼는 곳, 그곳은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인들이 이런 값진 시간 가운데 오히려 잃는 것, 박탈당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직속상관과의 마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유로 생각할 겁니다.

군 안에서 직속상관과 마찰이 생길 때를 떠올려보면, 그 이유에 집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를 구성원이 아니라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마찰을 핑계로 나에게 본심을 표현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면, 연인이나 친구들은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 있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바깥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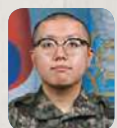
별로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군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볼 거야'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군대에 있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혹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잠겨 관계에 더욱 집착하거나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인이나 친구를 군대 안에서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윤홍균 박사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문제의 원인은 결국 나의 '낮은 자존감'에 있기에, 자존감만 높인다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것이죠. 윤홍균 박사는 개인 블로그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얻게 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법, 자존감 트레이닝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다른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은 자존감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제시하지만 자존감을 올릴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책은 그 부분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자. 당신은 밀림의 왕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혹시 군에서 나를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나 자신을 문제 삼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존감 수업」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군 생활의 주연으로, 더 나아가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글
일병 김수만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훈공보실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_____
- 월간 <공군> 11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_____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_____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_____

11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7

November
Vol.473

월간 「공군」 11월호

잘 읽고 정답은
상단엽서에 적어주세요~

Quiz

마감일 : 11월 30일까지

1. 공군 서울기지에서 실시하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로, 1996년 서울국제에어쇼가 모태인 이 행사는?
① MADEX ② 서울 ADEX 2017 ③ 지상군 페스티벌
2. 야간 항공기 안전과 폭발물 탐지 등을 맡는 공군의 전우(戰友)는?
① 군묘(軍猫) ② 군견(軍犬) ③ 군우(軍牛)

9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 정답** 1. ③ 페이퍼 글라이더 2. ② 글라주노프
당첨자 대구 달서구 우윤숙 / 광주 북구 조명현 / 경남 김해시 김현영 /
경남 창원시 김미정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1337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신고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신고유형

간첩 / 테러범 / 외국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 / 방산스파이 / 보안사고(위반) / 군관련 제보

Ⓜ 상금내역

간첩선. 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군 관련 제보 : 최고 5천만원

📞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영상공중전화 신고 '그림비' 및 'KT' 기본화면